

#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는 노동자 거의 없다”

### 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 실시 결과 “공공·준공공기관 소속 99.5% 이상 받아”

제주지역 생활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이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가량의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받지 못했던 것에 견줘 100%에 육박하며 크게 호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2017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전수조사에 나섰다.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및 민간위탁사업

노동자 등 공공기관 및 준공공기관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395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자의 99.51%가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용 대상자 가운데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자가 지난해 10%(1172명)에서 올해는 0.49%(69명)로 현저하게 감소했다.

도는 그동안 생활임금이 미적용됐던 장애인일자리사업(1214명)에 보전분 16억원을 편성했고, 민간위탁 사무인력(18명)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 체계를 변

경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했다.

올해 생활임금이 미적용된 사례는 대상자별 사업장 자체 보수 규정, 국비 지출,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을 적용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미적용된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적용방안을 재검토하고 1회 주경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연말 당해 연도의 최종 연봉을 협상하는 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제주는 타 시도에 견줘 제한적인 경제 규모에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다음으로 많은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상 규모는 서울 1만 3000명, 제주 1만2244명, 경기 1만명, 충남3947명, 전남 2800명 등이다.

제주지역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2017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19년 준공공(민간위탁) 부문, 2021년 국비사업 노동자, 2022년부터는 민간 하도급 노동자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은 전년도 1만1075원 대비, 3.14% 상승한 1만1423원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적인 생활임금 전수조사를 통해 생활임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금보장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 제주, 수입산 냉동팽치 유통 ‘투명’

### 지난 1일부터 합동점검 결과 부정사항 없어, 투명한 자율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

제주지역 수입산 냉동팽치 유통에 대한 부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3일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수입산 냉동팽치 유통 이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도, 지구별 수협, 도 어선주협회와 체결한 ‘어업용 미끼 유통 자율관리 지침 이행 협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금보장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옹도 외 사용,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거짓신고 등 부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갈치조업의 경우, 팽치 외에 대체 미끼가 없기 때문에 수입산 냉동팽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출어 경비가 늘어나 많은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는 정부에 관세 조정 인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난해 5월 조정관세규정 개정으로 도내 갈치 조업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입 수산물의 옹도 외 사용을 근절하는 등 투명한 유통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면서 “앞으로도 관세 인하 기조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제주도 청년지원센터 지역 거점으로 지정

제주도 청년지원센터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로 지정됐다.

지난 5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청년지원센터에 따르면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 4 제3항에 따라 중앙청년센터와 시·도 청년센터의 정책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거점 청년센터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 사업 신청을 받았다. 서류심사, 현장점검을 거쳐 14곳을 선정해 현판식을 수여했다. 지정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된다.

제주청년센터는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으로 도내 청년들에게 청년정책 지원 및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거점 공간 활성화를 통한 청년들의 교류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간 활성화를 위해 청년다락 1~5호점 내에서 청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도내 청년들의 교류 활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그물 수선하는 어민들 7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어민들이 그물 수선 작업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 제주기업 제품 홍보·상담 한자리서

### 이달 19일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9일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수출상담회는 도내 가공식품과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되며, 특히 19~21일 열리는 제주

도 식품대전과 연계해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수출상담회에는 가공식품, 농수산식품 도내 수출기업 30개사와 핵심 수출 대상국가인 미국,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바이어 11개사가 참여한다.

수출상담회에서는 제품 전시와 함께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의 바이어와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되며, 미국 해외통상자문관을 통해 미국시장 진입을 위한 수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식품대전과 연계한 수출상담회와 관련, 제주를 대표하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 다양한 제주산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부설주차장·자기차고지 전수 조사

### 서귀포시, 오는 8월까지 6600여 개소 대상

서귀포시는 오는 8월까지 동지역 부설주차장과 읍면지역 자기차고지 등 6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 전수 조사를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 등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이 목적대로 정상 유지 중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동지역 부설주차장 6145개소, 읍면지역 자기차고지 472개소로 현재 전수 조사원 5명을 채용해 현장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보조금 환수 등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최근 5년간 부설주차장 전수 조사를 통해 총 404개소의 위반 대상지를 적발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276개소가 원상 복구

를 마쳤고 128개소는 진행 중이다.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이 없는 대상지는 5월부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 강제금은 원상 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5회 부과되고 그 후에도 미이행 시 형사고발 조치에 나선다.

자기차고지의 경우엔 지난해 전수 조사에서 23개소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대부분 화단 설치나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어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고 컨테이너 설치 1개소는 원상 회복 명령으로 복구했다.

서귀포시는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한 민간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에 책임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관리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SINCE 1989  
**한라일보** 35주년

##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富)의 세상

조 합 장 김경필  
 상 임 이 사 고용수  
 비 상 임 이 사 윤성용 김정수 오춘석 허춘자 조현춘 김용식 정연광 김용섭  
 비 상 임 감 사 오재범 김민종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제주시 임항로 37 jeju.suhyup.co.kr/  
 T. (064)720-3100 F. (064)756-1011